

신공공성 공공가치 사례분석

〈정부학연구〉 2016년 4월호(제22권2호) 특별 기획논문으로 “뉴노멀시대 신공공성 탐색”을 발표한 이후, 저성장, 저물가, 고실업의 뉴노멀시대의 행정환경은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흐름과 맥락속에서 뉴노멀 행정환경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새로운 행정환경에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며, 행정이 추구해야 할 공공가치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으며, 그 변화과정에 부가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새로운 공공가치는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중요함에도 여전히 산발적이며 종합적인 논의에 이르고 있지 않다.

특히, 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인공지능 기술혁신에 바탕을 둔 기계학습(ML)기법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확대에 따른 새로운 공공가치 논의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더불어 최근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범위와 정부의 관여에 대한 지대한 논란이 진행 중이다. 이는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정부의 역할과 행정이 추구해야 할 공공가치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절실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정부학연구 기획논문 두 편에서는 최근 인공지능기반 공공서비스 확대에 따른 공공가치를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여 어떠한 공공가치가 새롭게 검토되고 고려되어야 하는지 논의하였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부산국제영화제 사례분석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첫 번째 논문(이제복·최상옥)은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공지능기반 공공서비스의 개념과 특징을 소개하고, 그것이 기존에 논의된 신공공성 공공가치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소개하였다. 인공지능 ML기법을 도입·적용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사례를 자동화서비스, 예측서비스, 적발·규제서비스로 구분하여 분석하여 새로운 기술진보에 따른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공공가치를 신공공성에 근거한 공유된 책임성, 종합적 다양성과 적극적 중립성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공가치의 보완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2 「정부학연구」 제24권 제1호(2018)

두 번째 논문(송유정·이용숙)은 2014년 이후 위기를 맞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의 위기 원인을 분석하고, 적극적 중립성의 관점에서 위기 극복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 논문은 국가에 의해 어떻게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가치로서 적극적 중립성에 위배되고 있는지, 그리고 문화공공성이 훼손되는 구체적인 과정을 분석한 후, 부산국제영화제 위기 극복의 전제 조건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중립성에 근거한 “간섭 없는 지원”이 제도화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향후에는 뉴노멀시대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서 정부의 역할과 행정이 추구해야 할 공공가치로서의 신공공성 공공가치에 대한 실증분석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본 기획 논문의 사례분석이 이어질 실증분석의 토대가 될 것으로 믿는다.

고려대 행정학과
최상옥